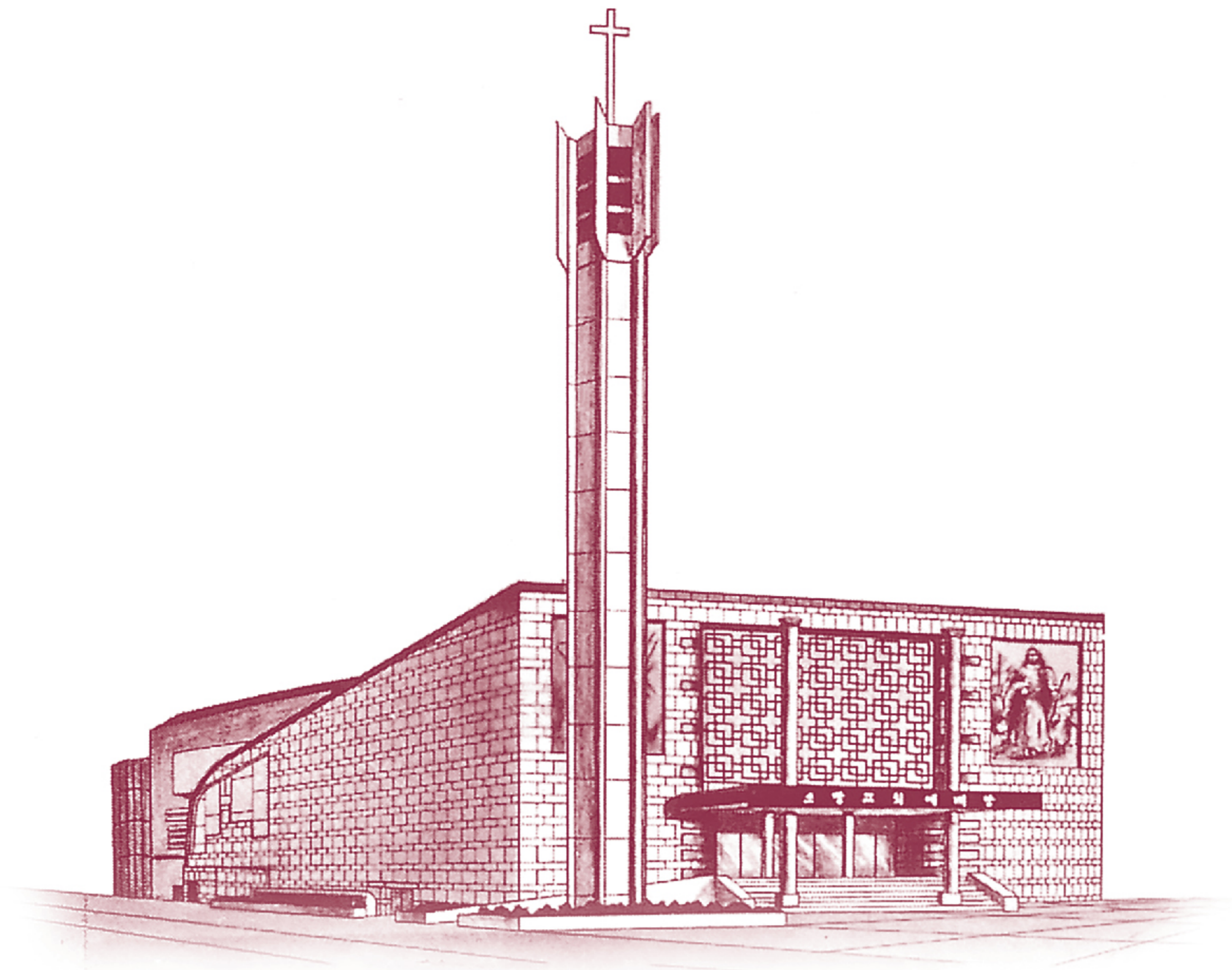


소망교회 성찬예배

2025. 12. 25 | 1부 오전 5:30 | 2부 7:30 | 3부 9:30 | 4부 11:30



담임목사 김경진 목사

교독문 119번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사 40:5)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미 5:2)**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사 9:6-7상)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눅 2:10-11)**

예배로부름	인 도 자
송 영	찬 양 대
기 원	인 도 자
찬 송 112	일 어 서 서
주님을 영접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기도	다 같 이

빛이신 주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따라 아기 예수를 환대했을 때,
 어둠에 휩싸인 이 땅에 비로소 한 줄기 빛이 임하였습니다.
 황금과 유향, 몰약이 그분 앞에 놓일 때,
 죄와 사망의 굴레에 갇혔던 세상에 드디어 구원의 빛이 비쳤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주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구유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왕관을 벗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는 주님의 사랑과 지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의 문법과 방식에 현혹되어
 복음의 신비를 놓치고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산 소망되신 주님,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이 땅의 겨울은 여전히 춥고 시립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방황하는 자들, 갈등과 분열 속에 지쳐 가는 자들,
 새봄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절망과 낙담에 빠진 자들로 넘쳐납니다.
 꿈꿨던 얼어붙은 이 땅에 다시 주님의 ‘소망의 꽃’을 피워 주시옵소서.
 산 소망되신 주님께서 우리로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이때, 우리가 주 앞에 신실한 약속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통해 ‘얻는 삶’을 넘어, 이제는 나를 통해 ‘드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복받는 삶’을 넘어, 나로부터 ‘복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탄절의 축제가 우리만의 잔치가 아닌,
 그늘진 온 땅에 주의 복이 넘실대는 은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성 시 교 독 119번(성탄절1)	앞 아 서
찬 송 125, 126	다 같 이
기 도	홍성민·이우성·이성민·이순기목사	
성 경 봉 독 눅 2:8~20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말 씬	목자가 전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		김경진목사
기 도	설 교 자
찬 송 123	다 같 이
헌 금 111(1절)	다 같 이
찬 송 115(끝절은 일어서서)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송 영	찬 양 대
축 하	다 같 이